

부모를 통하여 본 통합교육 상황 장애학생 상담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요섭*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통하여 통합교육 상황의 장애학생 상담실태와 상담제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초,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06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들이 받은 상담의 종류를 보면 모두 개인상담이었으며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을 동시에 경험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둘째, 상담방법은 심리상담/치료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행동수정,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도 의미 있는 비율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상담을 받은 이유는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대인관계/사회성 기술 향상, 문제행동 수정, 의사소통기술 향상 등이 의미 있는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제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의 대다수가 자녀들이 받은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장애자녀를 위한 상담의 활발한 정도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만 활발하다는 편에 응답하였으며, 대다수가 장애자녀가 일반학생에 비해 상담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장애학생 상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부족,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지식이나 경험 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째,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증대,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며 상담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외에도 부모들은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 학생 상담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기적이고 적극적 상담제공, 학교나 교육청에 장애학생 담당 (특수)상담사 배치, 그리고 상담교사/상담사 증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주제어 : 장애학생 부모, 통합교육 상황, 장애학생 상담실태, 장애학생 상담 활성화 방안

*주저자 (yskimm925@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1년 처음으로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됨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외형상으로는 해가 갈수록 확장되어 이제는 특수교육의 보편화된 현상이 되었다. 특수교육실태조사서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통합교육 상황에 배치된 학생의 비율이 52.4%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현재 71.0%까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교육인적자원부, 2001).

통합교육은 물리적(시간적) 통합, 교수활동적 통합,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이 가운데 사회적 통합이란 장애학생이 교사 및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됨으로써 통합학급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유진, 남숙경, 2013; 이소현, 박은혜, 2011). 이렇게 볼 때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은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학업수행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학교나 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뿐 아니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구들은 통합교육 상황에 있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많은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부족한 상호작용 속에서 소외 및 정서적인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통합학급과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서유진, 남숙경, 2013). 즉 통합교육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 예를 들어, 일반학생들에 의한 접촉 거부나 따돌림,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부족에 기인한 또래관계의 어려움,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이익, 학습실패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열등감, 낮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부진으로 인한 우울뿐 아니라 심지어는 학교 공포증을 경험하고 있다(권효진, 이숙향, 2008; 김요섭, 2015; 김향지, 2001; 송현중, 조성은, 2006; Bowen, 1998).

이러한 사실은 통합교육 상황의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극복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며, 그러한 지원 가운데 한 가지는 상담전문가를 통한 상담서비스의 지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2조 2항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5조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지원이 포함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방안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학생 대상 상담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며, 장애학생 역시 학교상담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학교상담교사협회는 장애학생도 다양한 학교상담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이나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일반학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ASCA, 2004; 서유진, 2011, 재인용).

장애학생 대상 상담제공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장애학생 역시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상담교사는 장애학생 상담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송현중, 2005; 송현중, 조성은, 2006). 송현중과 조성은(2006)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논문을 통해 학교는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있어서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동료의 지지나 정서적 유능감 또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특수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교 상담자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송현중, 2008).

이처럼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의 필요성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제공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여 온 것에 비해, 실제로 상담지원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조사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즉 통합교육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 대상 상담실태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들이 소수 발견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으로서 전반적인 상담실태 뿐 아니라 장애학생 대상 상담 제공 시 문제점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유진(2010)은 국내에서의 통합교육 상황의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보면 상담의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제한적이었고, 상담에서 적용된 방법은 심리상담,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등이었으나 심리상담보다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상담이 더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현 외(2013)는 중·고등학교와 교육청, Wee센터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상담지원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담실태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보면, 장애학생의 경우 주로 개인상담을 활용함으로써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었으며, 상담내용은 대인관계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장애학생 상담지원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와 상담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인식 파악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합교육 상황 장애학생 상담이 얼마나 활발한지와 제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편이다.

김요섭(2017)은 장애학생이 통합된 중등학교에서 재직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대상 상담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담 장애학생 유형, 상담종류(예: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적용한 상담방법(예: 심리상담, 행동수정 등), 상담주제(예: 대인관계기술 향상,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등),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 정도, 장애학생 상담 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 연구가 교육청, Wee센터 등에 재직하는 교사들을 포함한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전 연구(예: 박성현 외, 2013)와 다른 점은, 통합교육 상황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대상 상담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한 점, 조사 대상에 상담교사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담사(상담교사 vs 상담사의 비율이 39%:61%로 상담사가 훨씬 높음)를 포함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담교사 및 상담사들이 인식하는 장애학생 상담 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사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소수 발견되고 있으나, 장애학생 발달 및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장애학생 부모를 통한 실태와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통해,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교내 상담사/상담교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학생 상담실태와 상담제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과 함께 상담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자녀 상담실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사함으로써 장애학생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실제적인 요구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추후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 상담에 반영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를 통해서 본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제공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들이 인식하는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양산을 포함하는 5개 지역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즉, 이들 지역에 위치한 5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자녀를 둔 부모 10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 및 자녀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자녀들의 배경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63.2%, 여자 36.8%로 나타났고, 현재 재학 학교급은 초등학교 34.0%, 중·고등학교 66.0%였다. 장애 유형별 분포를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면 지적장애 59.4%, 자폐성장애 22.6%, 지체장애 10.4%, 학습장애 4.7%, 청각장애 2.8% 순이었다. 장애등급의 경우 1급 6.6%, 2급 62.3%, 3급 26.4%로써 2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부모 및 자녀의 배경 정보

구분		빈도	비율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부	12	12.3
	모	92	86.8
	조부모	2	1.9
성별	남	67	63.2
	여	39	36.8
현재 재학 학교급	초등학교	36	34.0
	중·고등학교	70	66.0
자녀 장애유형	지적장애	63	59.4
	자폐성장애	24	22.6
	지체장애	11	10.4
	학습장애	5	4.7
	청각장애	3	2.8
	장애등급	1급	7
	2급	66	62.3
	3급	28	26.4
	등급(해당) 없음	5	4.7
합계		106	1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부모용 설문지였다. 설문지 내용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배경 정보를 묻는 문항(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학교급, 자녀의 장애유형, 자녀의 장애등급, 교내 상담교사/상담사를 통한 상담 경험 여부), 자녀의 상담실태를 파악하는 문항, 부모의 상담관련 인식 문항,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 상담의 활성화 혹은 개선을 위한 방안, 기타 견해나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용 설문지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장애학생 상담 지원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박성현 외(2013)의 연구와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들의 상담실태를 조사한 김요섭(2017)의 연구, 그리고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연구 방안(서유진, 2010)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제시된 보기에 체크하거나 직접 서술하는 것이었다. 부모 및 자녀의 배경 정보, 자녀의 상담실태를 파악하는 문항, 부모의 상담관련 인식을 묻는 문항은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하도록 하였고(일부 문항은 중복응답 허용),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을 묻는 문항과 상담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문항의 경우, 각각 주어진 보기 8가지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우선순위를 숫자로 쓰도록 하였다. 마지막의 기타 문항은 앞의 문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장애학생 상담지원과 관련된 견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 방식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설문지 문항 내용과 응답 방식

구분	문항 내용	응답 방식
부모/자녀의 배경	자녀와 관계, 자녀 성별, 자녀의 학교급, 자녀의 장애유형, 자녀의 장애등급, 교내 상담교사/상담사 통한 상담 경험 여부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
상담실태	상담 요청자 상담 종류 상담 방법 상담받은 이유/내용	- 제시된 보기에 체크 (일부 문항 중복 응답) - 일부 문항에서 보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직접서술 요청
상담관련 인식	상담의 도움 정도 상담의 활발한 정도 일반학생 상담과 비교	제시된 보기에 체크
활성화 방해요인	상담 활성화 방해 요인	제시된 8개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선택 후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기
활성화 방안	상담 활성화/개선 방안	
기타	상담지원 관련 기타 견해나 요구	장애학생 상담지원 관련 견해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서술

설문지 제작 과정을 보면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경상남도 C시 장애인 부모회 임원 2명과 특수교육 및 상담전공 교수 각각 1명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상담을 요청한 사람을 파악하는 문항의 보기에 ‘학생자신’을 포함하기, 둘째, 상담방법에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독서치료’를 추가하기를 제시하였다. 상담방법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상담의 주요 방법은 언어이므로 언어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통념이 있으나, 장애학생 대상 상담에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확장되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즉, 장애학생과 상호교류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 외의 다양한 방법 가령 음악치료, 미술치료 뿐 아니라,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독서치료 등의 방법도 유용하게 사용된다(김영숙, 윤여홍, 2009)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담의 방법에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독서치료를 추가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양산을 포함한 5개 지역에 위치한 5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자녀가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설문지의 부모/자녀의 배경 부분에 자녀가 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설문지를 2부분으로 나누어 경험이 있는 부모는 상담실태 및 인식조사에 관한 부분을, 경험이 없는 부모의 경우 상담서비스 관련 요구 조사에 관한 부분에 답하도록 하였다. 5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통하여 325명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93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자녀가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재학 시 상담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의 설문지는 112부(38.2%)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06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0을 활용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배경정보를 묻는 문항, 자녀의 상담실태를 파악하는 문항, 부모의 상담관련 인식을 묻는 문항들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 가운데 상담종류와 이에 따라 활용된 상담의 방법, 그리고 상담종류와 이에 따라 상담을 받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문항의 경우 항목별로 순위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별로 가산점을 부여한 합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의 장애학생 상담지원과 관련된 견해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청한 문항의 경우 응답자들이 서술한 내용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의미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범주화한 후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상담 실태

1) 상담 요청자

교내 상담교사/상담사에게 장애자녀의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뢰한 사람을 보면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부모가 54.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반 교사와 담임교사가 각각 28.3%, 27.4%로 비슷하였고 학생 자신이 요청한 경우도 11.3%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부모	58	54.7
특수반 교사	30	28.3
담임 교사	29	27.4
학생 자신	12	11.3
기타	4	3.8

2) 상담 종류

장애자녀가 받은 상담의 종류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모두 개인 상담을 경험하였고, 이 가운데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을 함께 경험한 경우는 각각 10.4%와 11.3%로써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4> 상담 종류 (N=106, 중복 응답)

구분	빈도	비율
개인상담 경험	106	100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함께 경험	11	10.4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함께 경험	12	11.3

3) 상담 종류와 활용된 방법

상담 종류와 이에 따라 활용된 상담 방법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개인상담의 경우 심리상담/치료가 80.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행동수정/치료 39.6%, 미술치료 23.6%, 음악치료 20.8%, 놀이치료 17.0%, 모래놀이치료와 독서치료가 각각 7.5%,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심리상담/치료 외의 다양한 방법들도 의미 있는 비율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집단상담의 경우 심리상담/치료가 72.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은 미술치료 54.5%, 놀이치료 45.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상담의 경우 심리상담/치료 100%, 미술치료 33.3%, 음악치료 25.0%였다.

<표 5> 상담 종류와 활용된 방법 (N=106, 중복 응답)

종류	활용된 방법	빈도	비율
개인상담 106명 (100%)	심리상담/치료	85	80.2
	행동수정/치료	42	39.6
	미술치료	25	23.6
	음악치료	22	20.8
	놀이치료	18	17.0
	모래놀이치료	8	7.5
	독서치료	6	5.7
집단상담 11명 (10.4%)	심리상담/치료	8	72.7
	미술치료	6	54.5
	놀이치료	5	45.5
	행동수정/치료	2	18.2
	음악치료	2	18.2
가족상담 12명 (11.3%)	모래놀이치료	2	18.2
	심리상담/치료	12	100
	미술치료	4	33.3
	음악치료	3	25.0

4) 상담 종류에 따른 상담 받은 이유나 내용

상담 종류에 따른 상담을 받은 이유나 내용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개인상담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이 6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55.7%, 문제행동 수정이 4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의사소통기술 향상 26.4%, 자기결정능력 향상 17.0%, 독립생활기술 향상 12.3%, 자조기술/자기관리기술 향상과 진로 및 취업이 동일하게 10.4%로 나타남으로써 개인상담을 받은 이유나 주제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상담의 경우 역시 개인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이 90.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72.7%, 문제행동 수정 36.4%, 의사소통기술 향상과 자기결정능력 향상이 동일하게 18.2%로 나타났다. 가족상담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91.7%,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75.0%, 의사소통기술 향상이 41.7%로 나타나 개인상담의 내용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표 6> 상담 종류와 상담 받은 이유나 내용 (N=106, 중복 응답)

종류	이유나 내용	빈도	비율
개인상담 106명 (100%)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71	67.0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59	55.7
	문제행동 수정	48	45.3
	의사소통기술 향상	28	26.4
	자기결정능력 향상	18	17.0
	독립생활기술 향상	13	12.3
	자조기술/자기관리 기술 향상	11	10.4
	진로 및 취업	11	10.4
	학업성취도 향상	2	1.9
	이성교제 관련 문제	2	1.9
집단상담 11명 (10.4%)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10	90.9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8	72.7
	문제행동 수정	4	36.4
	의사소통기술 향상	2	18.2
	자기결정능력 향상	2	18.2
가족상담 12명 (11.3%)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11	91.7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	9	75.0
	의사소통기술 향상	5	41.7

2. 상담관련 인식

1) 상담의 도움 정도

자녀들이 상담을 받은 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를 보면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다소 도움이 되었다’가 68.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10.4%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 즉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각각 17.9%와 2.8%로 조사되었다.

<표 7> 상담의 도움 정도 (N=106)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11	10.4
다소 도움이 되었다.	73	68.9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	17.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2.8

2) 장애학생 상담의 활발한 정도

부모들이 인식하는 장애학생 상담의 활발한 정도를 보면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매우 활발하다’ 1.9%. ‘어느 정도 활발하다’가 55.7%로 나타났으나, 반대의 견해 즉 ‘거의 활발하지 않다’ 36.8%, ‘전혀 활발하지 않다’ 5.7%, 합계 42.5%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상담의 활발한 정도 (N=106)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활발하다.	2	1.9
어느 정도 활발하다.	59	55.7
거의 활발하지 않다.	39	36.8
전혀 활발하지 않다.	6	5.7

3) 일반학생 상담과 비교

부모들에게 장애자녀의 상담 혜택을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물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에 비해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를 차지한 반면에 ‘일반학생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32.1%,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4.7%로 나타났다.

<표 9> 일반학생 상담과 비교 (N=106)

구분	빈도	비율
일반학생에 비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67	63.2
일반학생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34	32.1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5	4.7

3. 상담 활성화 방해 요인과 활성화 방안

1)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

자녀가 상담을 받아 본 부모들이 생각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상담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 보기 8가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방해요인이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쓰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니 1순위에서 8순위까지 모두 표기한 응답자도 있었으나 8가지 중 몇 가지만을 선택한 후 순위를 표기한 응답자도 있었다. 1순위에서 8순위까지 응답한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 (N=106, 괄호 안 숫자는 비율)

항목(순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가산점 합계	합계 순위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	44 (41.5)	14 (13.2)	14 (13.2)	13 (12.3)	3 (2.8)	3 (2.8)	5 (4.7)	1 (0.9)	631	1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	24 (22.6)	26 (24.5)	11 (10.4)	17 (16.0)	9 (8.5)	2 (1.9)	5 (4.7)	4 (3.8)	581	2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상담지식이나 경험 부족	15 (14.2)	18 (17.0)	22 (20.8)	11 (10.4)	3 (2.8)	3 (2.8)	3 (2.8)	1 (0.9)	461	4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부족	13 (12.3)	22 (20.8)	26 (24.5)	12 (11.3)	7 (6.6)	6 (5.7)	3 (2.8)	5 (4.7)	531	3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은 상담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4 (3.8)	14 (13.2)	18 (17.0)	16 (15.1)	17 (16.0)	6 (5.7)	4 (3.8)	2 (1.9)	414	5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상담 담당은 자신이라는 인식	3 (2.8)	7 (6.6)	3 (2.8)	11 (10.4)	13 (12.3)	6 (5.7)	7 (6.6)	8 (7.5)	238	6
상담교사/상담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장애학생 상담시간 부족	3 (2.8)	2 (1.9)	5 (4.7)	11 (10.4)	6 (5.7)	6 (5.7)	5 (4.7)	5 (4.7)	180	8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상담 의뢰 혹은 협력 부족	-	3 (2.8)	5 (4.7)	10 (9.4)	14 (13.2)	8 (7.5)	5 (4.7)	5 (4.7)	196	7

1순위에 응답한 항목을 보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 22.6%,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상담지식이나 경험 부족 14.2%,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부족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장애학생 상담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한 후 우선순위를 붙인 항목들의 전반적인 경향

을 파악해 보기 위해, 1순위에서 8순위까지 포함된 항목들의 빈도에 가산점 곱하기 즉 1순위에 8점, 2순위에 7점의 방식으로 하여 마지막 8순위에는 1점을 곱한 후 합계를 내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른 순위를 보면 1순위로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이었고, 다음은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부족,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상담지식이나 경험 부족,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은 상담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2) 상담의 활성화 혹은 개선을 위한 방안

부모들이 생각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상담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나 개선할 점을 파악해 보기 위해 보기 8가지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활성화 혹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쓰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니 역시 1순위에서 8순위까지 모두 표기한 응답자도 있었으나 8가지 중 몇 가지만을 선택한 후 순위를 표기한 응답자도 있었다. 1순위에서 8순위까지 응답한 빈도와 비율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 혹은 개선 방안 (N=106, 괄호 안 숫자는 비율)

항목\순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가산점 합계	합계 순위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증대	25 (23.6)	28 (26.4)	18 (17.0)	19 (17.9)	5 (4.7)	-	-	-	619	1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 학생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인식 증대	21 (19.8)	13 (12.3)	17 (16.0)	14 (13.2)	12 (11.3)	4 (3.8)	1 (0.9)	1 (0.9)	494	3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	19 (17.9)	14 (13.2)	20 (18.9)	13 (12.3)	14 (13.2)	9 (8.5)	7 (6.6)	-	532	2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 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증대	14 (13.2)	13 (12.3)	12 (11.3)	18 (17.0)	12 (11.3)	7 (6.6)	8 (7.5)	-	450	4
장애학생 상담의 주 담당자는 상담교사/상담사 자신이라는 인식의 증대	12 (11.3)	17 (16.0)	12 (11.3)	12 (11.3)	17 (16.0)	4 (3.8)	3 (2.8)	3 (2.8)	436	5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상담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10 (9.4)	18 (17.0)	20 (18.9)	10 (9.4)	11 (10.4)	3 (2.8)	-	-	429	6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상담 의뢰 혹은 요청의 활성화	5 (4.7)	3 (2.8)	6 (5.7)	11 (10.4)	12 (11.3)	14 (13.2)	6 (5.7)	3 (2.8)	257	7
상담교사/상담사의 업무과다 문제 해결	-	-	1 (0.9)	5 (4.7)	9 (8.5)	4 (3.8)	14 (13.2)	14 (13.2)	121	8

1순위에 응답한 항목을 보면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증대가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인식 증대 19.8%,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 17.9%,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증대 13.2%, 장애학생 상담의 주 담당자는 상담교사/상담사 자신이라는 인식의 증대 11.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장애학생 상담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한 후 우선순위를 붙인 항목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역시 1순위에서 8순위까지 포함된 항목들의 빈도에 가산점 곱하기 즉 1순위에 8점, 2순위에 7점의 방식으로 하여 마지막 8순위에는 1점을 곱한 후 합계를 내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른 순위를 보면 1순위로는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증대였으며, 다음으로는 장애학생 부모의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인식 증대,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증대, 장애학생 상담의 주 담당자는 상담교사/상담사 자신이라는 인식의 증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장애학생 상담지원 관련 기타 견해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응답한 것 이외에도 부모들이 경험하였거나 인식하는 장애학생 상담지원과 관련된 견해나 요구사항 혹은 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설문지 맨 마지막 문항에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46명이 응답하였으며 한 부모가 여러 개의 견해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먼저 이 견해들을 모두 나열한 후 상담지원과 관련된 견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것만을 구분하니 개별 건수로는 총 74건이 되었다. 다시 이 74건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의미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범주화해 보았더니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들이 장애자녀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결과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한 내용들은 앞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 관련 문항, 혹은 활성화 방안들과 유사한 내용들도 있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8가지 범주의 건수 및 비율, 그리고 각 범주별로 기술한 내용 중 대표적인 응답의 예들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장애학생 상담지원 관련 기타 견해 (응답자 46명, 74건, 중복 응답)

범주 및 건수(%)	응답의 예
1. 장애학생 상담 위한 학교 및 상담 교사/상담사의 관심 증대 (16건, 21.6%)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더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학교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일반학생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애아는 그렇지 않으니 상담선생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함” “상담선생님들이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음”
2.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 이해 및 상담역량 강화 필요 (14건, 18.9%)	“상담선생님이 장애아에 대한 특성과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음” “상담사는 여러 분야의 학생을 모두 상담해야 하며, 따라서 장애학생의 특성이나 이해에 대한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장애학생이 의사소통, 지적능력 부족으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상담선생님이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됨”
3. 장애학생 정기적, 적극적 상담 필요 (11건, 14.9%)	“장애아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기적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음” “상담사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상담을 한다고 느껴짐.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함”
4. 장애학생 담당 (특수)상담사 필요 (10건, 13.5%)	“학교에는 장애아동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없는 것 같음” “학교마다 장애학생을 상담할 특수상담사가 필요함” “장애아동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사가 교육청 당 1명씩이라도 배치되었으면 좋겠음”
5. 특정한 영역의 상담 필요 (7건, 9.5%)	“장애학생은 성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많이 필요함” “장애학생이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피하고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6. 상담교사/상담사 증원 필요 (6건, 8.1%)	“00시의 학교에 심리상담사가 너무 적음. 인원을 늘려 매년 장애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았으면 함” “일선학교에 상담선생님을 더 배치하여 장애학생도 필요할 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
7. 상담사와 (특수) 교사의 협력 필요 (4건, 5.4%)	“상담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장애학생이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학급 선생님이 장애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면 즉시 추천해주었으면 좋겠음”
8. 기타 (6건, 8.1%)	“특수교사나 일반교사가 상담을 배워서 필요할 때 즉시 상담을 했으면 좋겠음” “학교에서 장애학생 상담뿐 아니라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학교에 상담사가 있어서 장애아동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부모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음”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교에서 상담사/상담교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담을 경험한 장애학생의 부모를 통하여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실태, 상담제공에 대한 부모의 인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 실태

장애자녀의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뢰한 사람을 보면 부모가 54.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특수반 교사와 일반교사가 요청한 경우를 합친 비율인 55.7%와 비슷한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상담서비스를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후에 서술되는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 방안 가운데 ‘부모들이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의 증대와 함께 요구가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들이 받은 상담의 종류를 보면 개인상담은 100%였으나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10%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이 낮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 역시 상담의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이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제한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는 박성현 등(2013)이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상담 지원 실태조사 결과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을 제공한다는 교사들은 각각 9.7%와 41.7%의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난 점이 될 것이다.

상담종류와 이에 따라 활용된 방법으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모두에서 심리상담/치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행동수정/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도 얼마간의 비율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장애학생 상담의 경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를 주 도구로 하는 심리상담 외의 다양한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김영숙, 윤여홍, 2009; 이경현, 이지연, 2013)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김요섭(2017)이 일반학교 상담교사/상담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상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담 시 적용한 방법이 심리상담 외에 행동수정,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도 역시 상당한 비율로 나타난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심리상담/치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결과는 서유진(2010)이 국내의 통합교육 상황의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연구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음악치료가 심리치료보다 더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인데, 그 이유로는 그동안 장애학생도 심리상담/치료의 대상(김동일 외, 2016)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심리상담/치료를 통한 상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을 받은 이유 즉 주제나 내용을 보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모두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대인관계/사회성기술 향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문제행동 수정, 그리고 의사소통기술 향상이 대체적으로 의미 있는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통합교육 상황의 장애학생들이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인 통합학급과 학교생활에 적응문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 문제행동 등으로 인한 또래 관계의 어려움(권효진, 이숙향, 2008; 김요섭, 2015; 김향지, 2001; 서유진, 남숙경, 2013; 송현중, 조성은, 2006; Bowen, 1998)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담 관련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이 받은 상담의 도움 여부에 대다수(79.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장애학생 상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자녀의 상담의 활발한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활발하다는 편에 응답한 비율(57.6%)이 높기는 하였으나, 반대의 견해 즉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비율(42.5%)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의 대다수(63.2%)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상담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학생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1%에 그쳤다. 이처럼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인식에 응답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대부분(82.0%)이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당연히 상담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김동일 외, 2016)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이 일반학생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과 일반학생에 비해 상담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상담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며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예: 송현중, 2008; Milsom & Hartely, 2005; 서유진, 2011, 재인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이들의 상담서비스 요구 조사에 바탕을 둔 상담서비스의 계획과 실행이 보다 더 활발해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3) 상담 활성화 방해 요인과 활성화 방안

부모들이 인식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장애학생 자신의 특성에 기인하는 요소(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상담교사/상담사에 기인하는 요소(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 장애학생 상담지식이나 경험 부족, 장애학생은 전문상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 이어 장애학생 부모 자신들의 문제(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 부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자신들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추후 자녀의 발달을 위해 상담지원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수교육과 생활지도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반학교 상담교사/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요섭(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대상 상담 제공 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들이 생각하는 상담 활성화의 방해 요인을 비교해 보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이나 인지능력 부족’과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부족’이 두 그룹 모두에서 동일하게 1, 2순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요인은 상담교사/상담사의 경우 ‘자신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장애학생 상담시간 부족’을 지적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이 제시된 8가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교사/상담사들이 부모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그들의 업무과중 문제에 대해 부모들이 인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부모들이 장애학생 상담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보면,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이해 증대, 부모들이 상담을 통한 자녀의 향상에 대해 관심 가지기,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며 상담이 가능하다는 인식 증대, 장애학생 상담의 주 담당자는 상담교사/상담사 자신이라는 인식의 증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의 상담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요섭(2017)의 조사에서 일반학교 상담교사/상담사들은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 방안 가운데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증대’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부모들은 이 요소를 높은 비중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 제공자와 상담 수혜자가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특성과 관련한 지식이나 이해 증대를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은 송현중(2008)의 연구에서 상담교사들이 장애학생 상담을 위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나 지식 및 역량이 미흡하며, 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장애학생 상담을 위한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점과 관련이 있으며,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선되지 못하여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담교사/상담사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 이해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상담교사/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및 심화 교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서유진, 2011), 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상담실습 과목에서 장애학생 대상 상담실습 기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기(최하영, 서유진, 2013)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담교사/상담사의 장애학생도 상담의 대상이며, 장애아 상담도 전문적인 상담이라는 인식(최하영, 서유진, 2013)의 증대 역시 상담교사/상담사들이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이유로는 상담서비스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김계현 외, 2011)는 점, 상담교사 양성 과정에 특수아 상담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용시험에서도 특수아 상담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사실은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전문상담의 대상에 장애학생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최하영, 서유진 2013).

4) 장애학생 상담지원 관련 기타 견해

부모들이 장애학생 상담지원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을 보면 앞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다시 강조한 경우들이 일부 있었으며, 이외에도 설문지에 제시된 보기에 응답한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이를 보면 첫째, 장애학생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는 앞서의 상담관련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 부모의 대다수가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점, 하지만 장애 자녀들의 상담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 점, 그리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상담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애학생 담당 특수상담사나 장애학생 상담의 경험이 많은 상담사를 학교나 교육청에 배치해 주기를 제안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전담상담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장애학생 상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상

담사를 교육청 별로 1명씩 배치하여 장애학생 상담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교사/상담사의 증원에 대한 제안의 경우 김요섭(2017)의 조사에서 일반학교 상담교사/상담사들이 장애학생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의 업무 과다 문제해결을 지적하였다는 점과 같은 맥락의 제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교사/상담사의 복수 인원 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의견 가운데 특별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견해 즉, 특수교사나 일반교사가 상담을 배워서 필요할 때 즉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사나 일반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상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상담교사/상담사 등 상담전문가들의 장애학생 이해 및 장애학생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다만 특수교사나 일반교사도 장애학생을 교육 및 지도하면서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성장을 위해 상담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경우에 상담교사/상담사에게 의뢰할 뿐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김요섭, 2017).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이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양산 등 5개 지역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담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자녀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지체장애가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장애와 청각장애가 소수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장애 유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후 조사에서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모두 포함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2018년 정기국회 보고 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1). **2001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
- 권효진, 이숙향 (2008). 학교 전문상담교사의 비장애 중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2), 33-54.
- 김계현, 김창대, 권경인, 황매향, 이상민, 최한나, 서영석, 이윤주, 손은령, 김용태, 김봉환, 김인규, 김동민, 임은미 (2011). **상담학 개론**. 서울: 학지사.
- 김동일, 고은영, 고혜정, 김병석, 김은향, 김혜숙, 박춘성, 이명경, 이은아, 이제경, 정여주, 최수미, 최종근, 홍성두 (2016). **특수아 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숙, 윤여홍 (2009). **교사와 부모를 위한 특수아 상담의 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 김요섭 (2015).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방안. **특수교육**, 14(3), 269-292.
- 김요섭 (2017). 중등학교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상담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통합교육연구**, 12(2), 91-113.
- 김향지 (2001). 경도정신지체 및 학습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상담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 241-257.
- 박성현, 황순영, 장우영 (2013). 전문상담교사의 장애상담 지원 실태 및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341-360.
- 서유진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연구 방안: 장애학생 상담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4), 133-174.
- 서유진 (2011). 장애학생 상담교과 이수율 통한 예비상담교사들의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역할 수행 역량 변화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93-118.
- 서유진, 남숙경 (2013). 장애학생 상담에 대한 초등학교 통합교사의 역할 필요도와 수행역량 인식 수준과 요구도 분석. **특수아동연구**, 15(3), 183-202.
- 송현중 (2005).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933-946.
- 송현중 (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상담교사의 준비와 역할수행 실태 분석. **상담학연구**, 9(2), 755-769.
- 송현중, 조성은 (2006).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비교. **특수교육연구**, 13(1), 49-65.
- 이경현, 이지연 (2013). 국내 장애아 상담연구동향 분석: 2002-2012년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3), 31-52.
- 이소현, 박은혜 (2011). **특수아동교육(3판)**. 서울: 학지사.
- 최하영, 서유진 (2013).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내 특수아상담 교과목 운영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과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19-38.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4).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nd students with special needs. Retrieved from <http://www.schoolcounselor.org/content.asp?contented=218>.

- Bowen, M. L. (1998).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students who have mild disabilitie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1), 16-25.
- Milsom, A. S. & Hartely, M. T. (2005). Assisting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ransitioning to college: What school counselors should know.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8*(5), 436-441.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on Strategies in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via Their Parents

Kim, Yo Seob
Kay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perceptions, barriers, and activation strategies in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via their parents. One-hundred and six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 parent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students experienced individual counseling and minority of them experienced group counseling or family counseling. Second, in terms of the counseling method, psychological counseling had the highest percentage and other methods such as behavior therapy, art therapy, and play therapy were also used. Third, the counseling topics ranked in the higher rate were improvement of school adaptation ability, improvement of social skills, behavior modification for problem behaviors, an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Fourth, the majority of the parents answered counseling services were helpful for their children, but perceived their children were less benefited in the counseling services compared to regular students. Fifth, the main barriers indicated by the parents to the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lack of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bilities of the students, lack of counselor'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s well as their counseling abilities and experien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lack of parents' concerns and efforts for their children's improvement through counseling services. Sixth, activation strategies suggested mainly were increase of counselor'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rease of parents' concerns for their children's improvement through counseling services, increase of counselor's recognition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also their clients and were able to be benefited by counseling services. Seventh, parents suggested increase of counselor's concerns of, and more active and regular counseling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cement of expert counselors in schools or local education agencies in charg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increase of school counselors. Lastly, summary, discuss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cluded on the base of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Key Words :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lusive Education Settings, Actual Condition in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tivation Strategies in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18. 11. 12 심사 시작: 2018. 11. 12 게재 확정: 2018. 12. 12